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재가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과 안녕에 미치는 효과

강정희(연세대학교 박사논문)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와 함께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높은 유병율을 보이며 의료적, 사회적 측면에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치매노인 문제는 가정 내 문제로 국한하여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들 돌봄이를 위한 사회적 지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의 돌봄이에게 사회적지지 중재를 하여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한 비동등성 전후 유사실험 설계이다.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고 종속변수는 돌봄이의 부담감과 안녕으로서 안녕감은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건강증상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의 내용은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도구적 지지와 휴식간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을 이용한 스트레스 관리기술을 포함한 중재는 10주간 실시하였으며 주 1회 모임에 9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장소는 경기도 A 보건소 회의실이었으며 연구기간은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였고, 편의추출에 의하여 18명의 실험군에 19명은 대조군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조사, 5주 후에 중간조사, 10주 후에 사후조사 하였고, 대조군은 프로그램 실시 없이 사전조사, 중간조사, 사후조사 하였다. 연구도구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독립변인으로 하였다. 종속변인은 서미혜와 오가실(1993)의 부담감 측정도구, 건강증상 조사서, 삶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서경희(1988)의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 Repeated Measured ANOVA, Spearma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부담감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에

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측정시기별로 부담감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중간조사에 비해 사후 조사에 유의한 부담감의 감소를 보였으며 대조군은 중간조사, 사후조사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삶의 질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측정시기별로 삶의 질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중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삶의 질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중간조사, 사후조사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측정시기별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여 중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중간조사, 사후조사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건강증상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에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건강증상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후조사에서 건강증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중간조사, 사후조사 모두 유의하게 건강증상이 많아졌다.

핵심되는 말 : 치매, 사회적지지, 돌봄이, 부담감, 안녕, 삶의질, 삶의 만족도, 건강증상